

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저수지 비상대처훈련

박용훈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5-22 09:34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가 21일 사리면 방축리에 위치한 용정저수지에서 민·관 합동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에는 지자체, 한전,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응급복구업체,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훈련에서는 태풍 복상 상황을 가정해 수리 시설물의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요령, 역할훈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황전파, 초기대응, 주민대피, 수습복구 등 상황별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박재우 지사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대응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